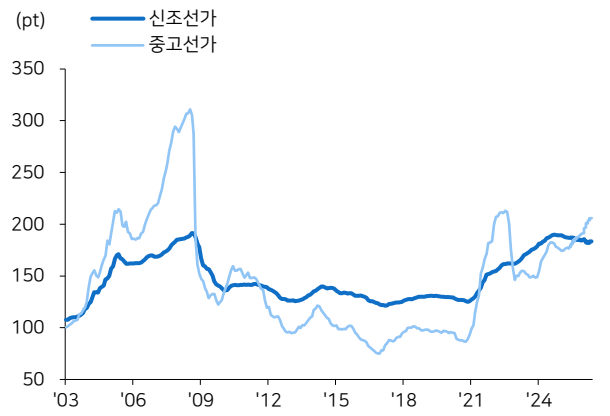
2026. 5. 7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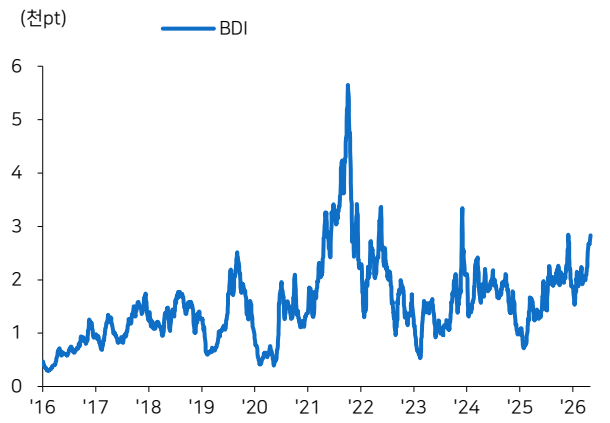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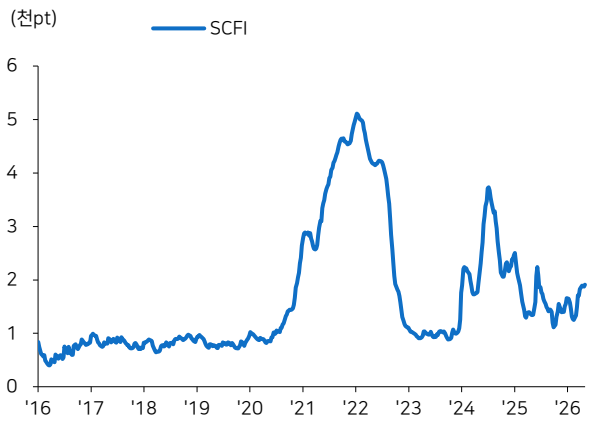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09.0달러 (+5.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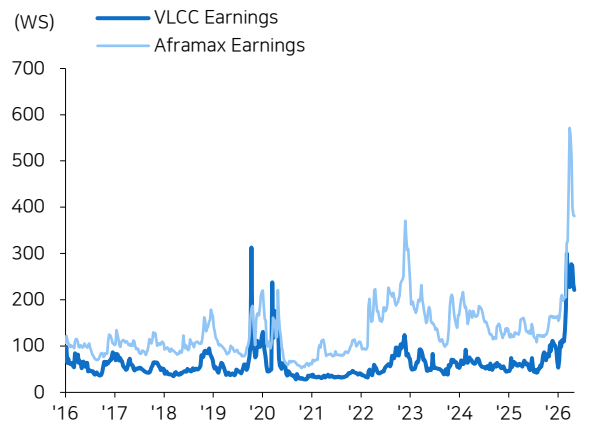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32.0p (+10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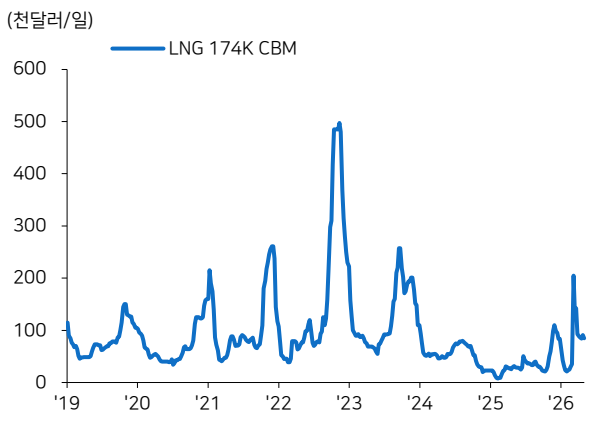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11.4(+36.1 WoW)



VLCC Spot Rate 220.8WS (-13.3p WoW)



LNG Spot 운임 85.0천달러 (-6.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Energy begins process to repair two LNG mega-trains hit in Iran attack (Upstream) https://zrr.kr/Hkc6j6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QatarEnergy가 올해 초 이란의 공격으로 파손된 대형 LNG 생산 설비 2기(4호기 및 6호기)의 복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보도됨. 공격받은 두 설비의 합산 생산 능력은 연간 1,280만 톤으로 카타르 전체 수출 역량의 약 17%를 차지하며, 운영사 측은 복구 완료까지 최대 5년이 소요되고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할 전망으로 전해짐. 복구 사업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QatarEnergy는 신규 입찰 대신 해당 설비를 최초 건설했던 Technip Energies와 Chiyoda Corporation에 접촉했다고 알려짐.

YPF eyes 'Latin America's largest project finance' for Argentina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O454ar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YPF가 Vaca Muerta 셰일 가스를 활용한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LNG 프로젝트를 위해 연말 최종투자결정(FID)을 목표로 금융 조달 조건을 체계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Eni 및 ADNOC의 투자 부문인 XRG와 협력하여 연간 600만 톤 규모의 FLNG 2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설비 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1,8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호라시오 마린 YPF 회장은 이번 사업이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될 전망으로 강조하며, 투명한 입찰 절차를 거쳐 수주 내에 금융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캐나다 원주민 프로젝트 협력 착수...'60조 잠수함 사업' 포석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THztAp

한화오션이 캐나다 원주민 주도 인프라 개발사인 NeeStaNan과 북극권 물류망 및 에너지 수출 루트 확보를 위한 '프레리 무역 · 에너지 회랑' 구축 협력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력은 앨버타 등 캐나다 내륙과 허드슨만 심해항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한화오션은 자사의 극지 환경 대응 설계 역량과 항만 건설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짐. 업계에서는 이번 민간 인프라 참여가 향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 및 북극해 작전 환경 대응 역량 입증의 계기가 되어, 방산 분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 계약 취소된 유조선 고가에 '리세일' 성공 (더구루) https://zrr.kr/4QM7Gg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계약이 취소되었던 Suezmax급 유조선 2척을 그리스 Minerva Marine에 재매각하며 4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척당 1억 달러 이상의 고가에 리세일되었으며,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유조선 품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즉시 운항 가능한 신조선의 가치가 시장가(약 8,7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짐. 이번 재매각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지급 잔금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수익성을 대폭 개선했으며, 선주사인 Minerva Marine 또한 강세를 보이는 유조선 시장에서 핵심 선형을 적기에 확보하게 되었다고 알려짐.

HJ 중공업, 군산조선소 부활 시동...공항·항만·철도 구축이 관건 (국민일보) https://zrr.kr/cd1ssa

HJ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수 및 재가동 절차가 실사 단계에 진입하며 가시화됨에 따라, 전북 지역의 공항 · 항만 · 철도 등 핵심 SOC 구축이 조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도됨. HJ중공업은 올해 안으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군산조선소를 VLCC 전담 생산기지로 전환해 2028년 첫 신조선을 인도할 계획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를 'K-스마트 조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해짐.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선주의 현장 실사와 미 해군 MRO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완공, 초대형 선박 입출항을 위한 군산항 준설, 그리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철도망 확충 등이 뒷받침되어야 군산조선소가 블록 생산 기지를 넘어 완전한 신조 기지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으로 알려짐.

'We can act': Trump's FMC chair threatens to create penalties for Net-Zero Framework tax (TradeWinds) https://zrr.kr/SkN8zV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프레임워크에 따른 온실가스 부담금 도입에 반대하며, 이에 대응해 선박 입항 거부나 관세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고 시사했음이 보도됨. 로다 디벨라 FMC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당 분담금이 미국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세금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의회나 대통령의 별도 조치 없이도 1920년 해사법 제19조를 근거로 독자적인 징벌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주요 기선국들과 함께 IMO의 경제적 규제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단체들은 탈탄소화 규제의 시급한 채택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국제 해운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